

투데이

올해 쌀 생산량 31년만에 최저

불량법씨 파동·기상악화로 422만t 예상 전남은 82만6000t...10a당 수확량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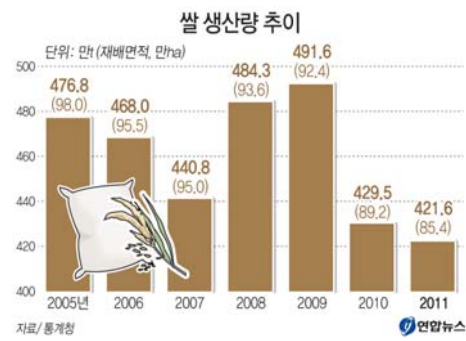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와 불량법씨 파동에 기상 악화 등으로 422만t에 그쳐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전남의 경우 생산량이 82만 6000t으로 예상되면서 전년도 생산량(84만6000t)에 못 미치지만 단위면적(10a)당 예상 수확량(475kg)은 평년을 웃도는 '풍작'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전국의 6684개 표본구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1만6000t으로 지난해(429만 5000t)보다 1.9% 감소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병해에 따라 이례적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1980년의 355만t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재배면적 감소(89만 2000ha→85만 4000ha)와 생육 초기의 잦은 비로 부진했던 작황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로 인해 전국 쌀 생산량은 지난 2006년 468만t, 2007년 440만 8000t, 2008년 484만 3000t, 2009년 491만 6000t 등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429만 5000t으로 급감해 2년째 420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10a 당 생산량도 올해 495kg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와 최저를 뺀 3개년 평균인 평년 생산량(499kg)보다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지난해(483kg)보다는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전남의 예상 생산량은 82만 6000t으로 전년도(84만6000t)보다 2.4% 감소했지만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쌀 재배면적이 지난해(18만3804ha)보다 4.8%

(8874ha) 줄어 17만4930ha에 머물고 다른 작물 재배(9053ha)가 늘어나면서 전체적 생산량은 감소했다.

그러나 단위면적(10a)당 예상 수확량은 475kg으로 전년(465kg)보다 10kg 증가했고 평년 생산량(472kg)보다도 3kg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 쌀 농사가 기상악화 및 불량법씨 파동에도 불구하고, 등숙기 기상 여건이 좋았기에 따라 '풍작'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2011년 쌀 수요량이 쌀발육(351만t)·공공비축미 전량(14만t) 등 418만t으로, 쌀 생산량과 견줘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급부족과 쌀값 급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사 시점 이후 기상여건이 좋아 실제 쌀 생산량은 예측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엔 새천년개발 연합국제보도사진전

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박정환 연합뉴스 사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내빈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전 세계 언론사 소속 또는 프리랜서 포토저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이뤄진 공모에서 엄선된 주요 수상작 45점이 오는 23일까지 선보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연합뉴스가 유엔과 함께하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연합국제보도사진전' 광주전시회가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박정환 연합뉴스 사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내빈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전 세계 언론사 소속 또는 프리랜서 포토저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이뤄진 공모에서 엄선된 주요 수상작 45점이 오는 23일까지 선보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베트남전 참가자 광주·전남 11700명 국가유공자 된다

최근 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게 된 베트남전 참가자 17만5000여명이 이달 내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는다. 광주에서는 4517명, 전남에서는 7212명이 대상자다. 광주지방보훈청 등은 10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회장단에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이달 내에 각각 전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목표지침이 오는 20일 관할구역 내 대상자 1991명에게 증서를 수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7일 광주지방보훈청(7518명)과 순천지청(3220명) 등이 잇따라 베트남전 참가자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수한다.

과거 참전유공자로 분류됐던 베트남전 참가자들은 지난 6월30일 개정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에 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명칭을 얻게 됐다. 다만 수혜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법 개정에서 6·25전쟁 참전 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고엽제 관련 질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 오늘 美 국민방문

상·하원 합동회의서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민 자격으로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5일까지 방미 기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대북정책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 전반 등에 대해 논의하며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양국 정상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포함, 10시간 이상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



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에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 14일 이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방문할 때 오바마 대통령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벨 경제학상에 사르트르·심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의 토머스 사르트 교수와 크리스토퍼 심스 교수가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거시경제의 인과관

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두각을 나타낸 미국 뉴욕대의 토머스 사르트 교수와 프린스턴대의 크리스토퍼 심스 교수 등 2명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석유관리원에 '準 수사권한' 부여 추진

유사 석유제품 철퇴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준(準)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석유관리원이 유사 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에 있게 마련인 비밀탱크를 점검할 권한이 없는 데 대해 국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관리원이 비밀탱크를 포

함한 주유소 불법시설물을 수색, 확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정부는 현재 유사 석유 취급 주유소에 부과되는 과징금 5000만원을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990년 이후 5960가구 전남으로 귀농

전국에서 세번째...5년새 농촌인구 감소세 둔화

귀농이 늘어나면서 농촌인구 감소가 최근 5년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귀농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귀농 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인구(광역시·읍·면 단위 인구 포함)는 875만 7000명으로, 지난해 876만 4000명보다 7000명(0.08%) 감소했다. 지난해 2000년의 농촌인구(938만 1000명)보다는 62만

4000명(6.65%) 줄었다.

그러나 지난 2000~2005년에 비해 최근 5년간 농촌인구 감소세는 크게 둔화했으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늘어났다.

도시를 떠나 농촌에 다시 정착하는 귀농가구수도 지난 1990년 이후 작년까지 모두 3만8446가구인 것으로 집

계됐다. 지난 1990년 이후 지역별 귀농가구수는 경북이 8789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 6046가구, 전남 5960가구, 전북 5210가구 등이었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08년 289가구인 귀농 인구는 2009년 549가구, 지난해 768가구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행복마을 사업과 친환경 농업 등 경쟁력 있는 농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성과라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작년 4443가구 사라져

30만명 관람 '남도음식큰잔치' 성료

전국 멸실주택 6만2천가구

광주·전남지역의 지난해 멸실주택이 모두 4443가구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멸실주택이 모두 6만 2485가구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멸실주택이란 건축법상 주택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이 철거 등의 이유로 사라져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된 경우를 가리킨다.

지난해 멸실된 주택 숫자는 광주가 1524가구, 전남이 2919가구였다. 광주의 경우 단독주택이 1406가구, 다가구주택이 104가구, 다세대주택 14가

구 수이었다. 전남은 단독주택 2900가

구, 다가구주택 19가구가 멸실됐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이 2만3762가

구(38%), 지방이 3만8723가구(62%)

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전체 멸실주택의 72%에 해당하는 4만 4981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가구주택 7327가구, 아파트 7124가구, 연립주

택 1704가구, 다세대주택 134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멸실주택 통계는 지난해 6월 마련된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처음 공표된 것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제18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30

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불러들이며 성

대하게 막을 내렸다.

9일까지 사흘간 순천시 낙안읍성에 서 열린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전남

도가 직접 축제의 내실화를 챙기고 나

서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맛·향이 뛰어난 남도의 뛰어난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지역 대표적인 음식 축제

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맛깔스럽기로 소문난 22개 시·군의 대표적인 음식과 세계의 음식을 선보인 전시관은 행사 기간 내내 관

객들이 길게 줄지어 늘어선 등 인기를 끌었고 전국 최대의 친환경

생산지의 명성에 걸맞게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남도 건강 음식 전시관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남도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한 몽골대사 등 12개 국가의 외교 사절단도 행사장을 찾아 남도의 맛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일반인들의 참여로 이뤄진 남도음식경연대회는 일반부에서는 강진 노동섭씨가, 대학생부에서는 초당대 방병훈·박찬수씨가, 시·군 음식전에서는 곡성의 김해숙씨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매투자

- 공동 투자 및 함께 공부 하실분
- 40% 미만 특수물건만 전문투자
- 주 1회 3개월 투자분석 및 개인지도
- 년 30% 수익률 법적보장!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1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이치 ~ 치료 치료

대한 한의사협회 의료관리위원회 제110725-중-9092호

뜻밖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갚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종기 등의 사용료 대대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용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적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점장(문체준) 010-5311-0086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을 받는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3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05-2535 전문즉시택배 무료배송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금서비스 · 개인회생정리 · 현금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년 6%정도 (천만원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율)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I세-80%+a (60%)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60%)
금리: 연 3.93%~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